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끝)

#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시인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 진관 스님은 항상 자신이 시인이라고 확인한다. 불교운동 혹은 민주화운동 역할은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시인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어디에서나 그는 시를 썼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다른 방향이 앞길을 재촉한다. 서울에 정착하게 될 줄 알았던 그는 부산으로 가게 된다.

“선학원에서 조계사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조계사에 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조계사는 방부들이기. 근데 어떻게 해서 사정해가지고 조계사에 방부를 들였는데 그 조계사에서 살면서 이제 그 학원에 다니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에~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저 학생들과 내가 이 지금 말하면 소통 대화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꿈이 한 가지 무엇이냐 꿈을 다 가지는 거죠.”

사찰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올려야 하는 ‘방부들이기’가 있다. 1970년대 초 당시 조계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겨우 조계사에 방부를 들였다. 학원에 다녀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해야겠다고 자신에게 확인해본다. 그러나 주위의 스님들 모두 무예를 익히고 있었다. 거주하던 스님들 대부분이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줄 알았다. 진관 스님은 태권도를 배웠다. 사범의 경지까지 올랐다. 스님들의 무예 닦기는 불교 평화운동이 채 가지지 않은 흔적이다. 그 누가 조계사를 점거할지 모른다는 위기와 함께 시대적 상황을 느낄 수 있다.

어렵게 방부를 들었지만 총무원 스님들이 교제되면서 진관 스님도 조계사를 나와야 했다. 이후 진관 스님은 수원 봉녕사로 자리를 옮겨 다시 무예를 익히다가 범어사 강원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서장> <절요> <도서> 등 강원교정을 마쳤다.

“주지 스님은 이제 광덕 스님이요 또 능가 스님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쟁쟁한 스님들이 범어사에 계셨는데 범어사에 이제 광덕 스님이 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젊은 아이들을 학교 안 나온 젊은 아이들을 모두 인제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인제 어떻게 선포 했어요. 선포를 하니가 어 인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다가 인제 마치고 인제 시험을 봤으니까 가야되는데 아 이거 갑자기 영장이 나왔네 내가.”

광덕 스님은 범어사 선방스님이든, 강원 스님이든 모두 학교 공부를 이수하도록 재근한 것이다. 진관 스님은 강원에 있으면

서도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중학교 검정고시 또한 우여곡절 끝에 합격하였다. 강원을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을 통과했으나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군입대 영장이었다.

“광덕 스님이 서울대 전신 그 학교를 이수했다.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나왔다고 고 말만 들었고 또~ 능가 스님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왔던 스님 이제 이런 이제 그 때에 광덕 스님은 젊은 승려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그 때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종단에서 어 그 정화의 목표가 어 교육 포교 어 인제 역경 이 사업 3대사업을 어느 절에서든지 실천해야 된다.”

진관 스님 자신도 정화의 기치인 교육 사업의 혜택을 본 것이다. 젊은 스님들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 과정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 우여곡절 끝에 군에 입대를 했다. 훈련을 받고 부대 배치되어 하는데, 38선을 넘어 간다는 것이었다. 최전방에 배치된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솔직히 솔직히 한다. 경기도 전곡이라는 곳. 공병대 배치이다. 다리를 놓거나 굴을 뚫거나 질퍽을 짚어지고 시멘트를 섞는 작업에 투입되는 고된 병과였다. 짙은 머리에 스님이 입대했으므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옛날에 선학원에서 시 쓰듯이 하이네, 괴테 아 또는 인제 가니까 군대에서 인제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 주잖아 그 가지고 이제 어 시집을 샀지요. 시집을 사고 <사상계> 살려고 그러니까 못 가지게 해. 그 부대에서 못가지게 해. <사상계>를 거기서는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책방에 가서 이제 고거 읽고 또 인제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나는 그 특박으로 외출해서 책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전국 서점 어 책 읽으러 가고 인제 요런 역할을 하면서 어 시를 계속 썼지.”

군에서도 장준하 선생이 발행한 <사상계>를 구매해 읽고자 했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았다.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특박을 신청하고 허락이 되면 무조건 서점을 돌았다. <사상계>를 읽기 위함이다. 공병대 생활에 익숙해져갈 무렵 군단 사령부에서 특기생들을 뽑았다. 진관 스님은 태권도 특기생으로 차출되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부대에서 내가 근무하니까 개들도 부관부 소속이거든. 그래서 그 소속 소속에



진관 스님은 조계사에서 태권도를 배웠고, 향학열을 불태웠다.

### 언제 어디서나 시를 쓰고 읽고

### 군에서 익힌 웅변실력 시위 때 발휘

인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인제 태권도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잘 때 아이들이 인제 그 연대 다녔던 고대 다녔던 서울대 다녔던 아이들이 전부 이 태권도 하는 또 그 때는 또 존경하더라고요. 또 태권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가 이뤄졌어요. 이뤄져 가지고 아 내가 그 서울에 그 때 살았는데 응? 장준하 선생 그 강연 듣고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 거기서 봤다. 혹시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리고 또 더욱 친해진 것은 고 청주대학 청주대학 불교학사회 나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개가 군대에 왔어요.”

사령부에 차출되어 온 군인들 가운데 자신과 의기투합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준하 선생을 흠모하거나 연설회장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때 많은 동료들을 만들었다. 사령부의 군법당에서 많은 책을 읽었다. 여기서는 <사상계> 책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다른 부대로 옮겨간다.

“내가 인제 그 부관부 우체국 검열관으로 인제 가게 되요. 검열관이라 가게 됐는데 내가 검열하는 것은 인제 우리 부대에 편지가 인제 에 편지 검열관이예요. 그 부대 쪽으로 오는 아이들 편지는 전부 내가 검열을 해서 인제 내 보내는 건데 그 때에 인제 에 유신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요 두 가지 있는 문제예요. 고 때 우리 부대에서 아이가 아 유신 반대편을 내가 발견했어요. 고걸 소각하지 않고 난 부대로 바로 보내버렸어. 반대편 고걸 보내버렸는가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편지 내용을 검사하는 검열관에 배속됐다. 편지 내용에서 유신 찬성이면 전담하고 반대하면 소각해야 했다. 진관 스님은 반대편을 그대로 부대로 보냈다. 부대가 발각될까 걱정하지 않았던 이상한 것이다. 어느새 사고뭉치가 된 진관 스님. 군 간부들이 골머리를 썩힐 수밖에 없었다. 영장 보내기가 보류되고 진관 스님은 군 휴양소에 배치된다. 또 다시 시를 쓴다. 그리고 여기서 임진강을 상대로 웅변 연습을 시작한다. 이 웅변 연습은 훗날 대중들을 사로잡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운동권에 인제 편입되면서 내가 인자 한번 그 잘난 체는 못하잖아요. 잘난 체는 못하는데 그 가끔 인제 어려움이 있을 때 내한테 인제 그 시간을 주고 티브이 잘 나갈 때 이럴 때는 내 한테는 시간을 안줘요. 안주는 데 재운동 할 때 김대중 앞에서 김대중 김영삼 정치인들 앞에서는 다른 원로들이 하면 떠들떠들 읽잖아요. 근데 내 한테 돌아왔을 때는 온몸으로 그 성명서를 낭독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고성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몸으로 해줬지요.”

군 휴양소에서叛變을 향해 던진 웅변소리는 그렇게 데모대를 이끌었다. 원로들이 더듬거릴 때 진관 스님은 온 몸으로 민주화운동의 당위성을 외쳤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연설 잘 하는 스님으로 인정되어 자주 언론 매체에서 특이한 진관 스님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다. 그는 세간에서, 군에서, 출세간에서도 시인이 걸어야 할 길을 나아갔다. 힘 들고 고된 역경이 기다릴지라도 그릇된 역사를 바꾸기 위해 걸었다.



동국대 불교대학 외래교수

원형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시성(詩聖) 사이교(西行) ㉔

## 밤중의 산길도 목숨 있으니 걷는구나

사이교는 1149년 31세에 그간의 여행을 접고, 영장으로 알려진 고야산(高野山)에 들어가 암자를 짓는다. 당시 고야산은 대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부흥을 위해 각지에서 많은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그도 여기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이곳을 근거지로 30년간 활동했다.



히로카와데라 본당 전경, 오사카현 미나미카와지군 소재

62세가 되는 1180년에는 고대로부터 중세 시대로 이행하게 된 계기인 겐페이(源平)의 난이 일어난다. 전국 각지는 화염으로 뒤덮이고, 다음 해에는 수도마저 전쟁으로 폐허에 가까운 지경이 되었다. 그는 “동서남북 어디에도 싸움은 그칠 줄 모르고 사람이 죽어간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라는 한탄의 시를 읊었다.

는 이를 뿌리치고 떠났다. 그에게 선물로 비싼 은제의 고양이를 선물했지만 사이교는 관사의 문을 나서자마자 부근에서 놓고 있던 어린 아이에게 주어 버렸다고 한다.

전후에는 옛 수도 나라(奈良)의 토다이(東大寺) 부흥을 위해 협력하기도 했다. 당시 권진(勸進)으로 활동한 초겐(重源)이 협력을 요청하자 70에 가까운

열반 3년 전인 1187년 69세에 그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며 시를 읊었다. “옛날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싶구나. 구석구석에 숨어 있음을 보니.” 즉, 어린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는 다음 생애도 또 다시 불도에 의지해 은둔의 삶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시가는 여래의 참 모습이다

### 한 수의 시는 불상 한구와 같다”

노구를 이끌고 동북 지방에 가서 시주를 받아오기도 했다. 지금의 이와테현으로 가면서 그는 “나이를 먹어 또 산을 넘을 줄이야. 밤중의 산길도 목숨이 있으니 걷는구나”라고 읊었다. 그 이면에는 불법에 대한 믿음이 굳건함을 알 수 있다. 사이교는 이때 카마쿠라(鎌倉) 막부의 초대 장군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를 만났다.

1189년 71세에 교토(京都)의 북부에 자리한 신고지(神護寺)에서 뒷날 화엄종의 종조로 알려진 젊은 묘에(明惠) 상인에게 자신의 시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남겼다. “시가는 즉, 여래의 참된 모습이다. 따라서 시 한 수 읊으면 1구의 불상을 조각하는 것으로 여기고, 비밀의 진언을 윈다고 생각한다.” 이 해에 그는 역대의 조사들이 수행했다고 알려진 오사카(大阪) 근처의 산속에 있는 히로카와데라(弘川寺)의 뒷산에 초안을 지었다. 1년 뒤 그는 이곳에서 표박(漂泊)의 길에 종언을 고하였다. 현재 이 절의 경내에는 사이교 기념관이 있다. 사이교는 열반하기 십 수년 전에 이미 언과도 같은 시를 남겼다. “원하건대 꽃 아래 봄에 죽고 싶구나. 여월(如月)의 망월(望月) 즈음에.” 여월은 음력 2월을 말한다. 즉, 만개한 꽃이 피는 음력 2월 15일 부처님의 열반일에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한 것이다. 사이교는 실제 하루

1186년 어느 날, 요리토모는 신사를 배회하는 노승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가 사이교임을 알고 놀라서 그의 관사에 초대했다. 요리토모는 그에게 말을 타고 활을 쓰는 기술과 노래를 짓는 도를 물었다. 그러자 전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출가하기 전 젊은 시절, 이 분야에서 사이교는 꽤나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노래는 꽃이나 달을 보고 감동했을 때, 겨우 31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 이 이상 깊은 것은 모릅니다”하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는 5·7·5·7·7의 5구 31음으로 이루어지는 단가(短歌)를 말한다. 두 사람은 이들을 밤새워 이야기하였다. 요리토모는 함께 떠돌기를 원하였지만 사이교

1186년 어느 날, 요리토모는 신사를 배회하는 노승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가 사이교임을 알고 놀라서 그의 관사에 초대했다. 요리토모는 그에게 말을 타고 활을 쓰는 기술과 노래를 짓는 도를 물었다. 그러자 전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출가하기 전 젊은 시절, 이 분야에서 사이교는 꽤나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노래는 꽃이나 달을 보고 감동했을 때, 겨우 31자를 사용하면 되는 것. 이 이상 깊은 것은 모릅니다”하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는 5·7·5·7·7의 5구 31음으로 이루어지는 단가(短歌)를 말한다. 두 사람은 이들을 밤새워 이야기하였다. 요리토모는 함께 떠돌기를 원하였지만 사이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 특별판매

현토삼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차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집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집2도 인쇄

현토삼 02)2004-8215

##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